

침묵을 간직한 그녀들의 봄의 제전

푸른연극마을 30주년 공연 ‘안부’
오는 30일~4월 2일 서울 열린극장
4월 5~9일 광주 씨어터연바람 무대

푸른연극마을이 30주년 기념공연 ‘안부: 오래된 침묵을 간직한 그녀들의 봄의 제전’을 광주와 서울에서 선보인다.

이번 작품은 5·18민중항쟁에서 사회적 약자로 소외되며 영웅적 서사에 묻혀야 했던 여성 노동자들의 소박했던 삶과 그 이후 트라우마를 중심 서사로 한 여성노동자 이야기다.

공장에서 힘겨운 노동을 하면서도 자신만의 꿈을 꾸던 3명의 여성 노동자, 23살 박정, 22살 이순, 20살 고달은 로케트전기회사 노동자다.

왕언니 격인 박정은 아무지도 못 부르졌던 탓에 회사 노조 대의원이 됐다. 이순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소녀가장, 고달은 가수를 꿈꾸는 밝고 쾌활한 노동자다.

박정, 이순, 이달은 비슷한 처지로 친한 친구가 돼 이십대의 꿈을 꾸지만 열악한 노동환경은 늘 고달프고 힘들다.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자궐기대회를 준비하던 80년 5월 17일. 비상계엄령이 선포되면서 특전사 군인들이 광주에 내려오고 전남대, 조선대에서 학생들과 대치하는 상황에 맞닥뜨린다. 노동자궐기대회에서 광주민중항쟁 시민군이 된 이들은 10일간의 항쟁을 치러야 했던, 살아남은 자의 죄책감을 갖게 된다.

이순과 고달은 자신들의 삶에서 그녀의 기억을 지우고 살아간다. 그녀들은 마지막 날 박정에게 모질게 했던, 혼자 버려두고 온 것에 대한



푸른연극마을 30주년 기념공연 ‘안부’

상황을 미안하고 부끄러워하면서 기억하지 않은 채 평범하게 살아간다. 그러던 어느 날 사회 복지사 이봄으로부터 친구 박정의 안부를 듣게 되면서 광주로 오게 된다.

망각의 대상이 된 80년 5월. 누구에게도 할 수 없었던 이야기는 점점 더 깊어져만 가고 또 다시 찾아온 어느 봄날, 이들은 다시는 꺼내지 않을 것만 같았던 이야기를 꺼내게 된다.

40여년의 세월 동안 스스로 입을 다물고, 목소리를 죽이고, 고통 속으로 침잠해야만 했던 여성들의 이야기가 박정, 이순, 고달을 통해 서술된다.

서울 공연은 오는 30일부터 4월 2일까지 평

일 오후 7시30분, 주말 오후 4시 대학로 열린극장(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258-12)에서, 광주 공연은 4월 5일부터 9일까지 평일 오후 7시30분, 주말 오후 4시 씨어터연바람(동구 구성로 204번길 1-1 지하)에서 열린다.

오성완씨가 예술감독을, 이당금씨가 극작을, 이지현씨가 연출을 맡았다. 박정 역은 전서진, 이순 역은 이당금, 고달 역은 윤부진, 이봄 역은 오세희씨가 맡았다.

관람료는 전석 3만원이며 예매는 인터파크티켓과 플레이티켓에서 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062-226-2446)로 하면 된다.

/최진화 기자



어린이 음악인형극 ‘깡깡나무’

/ACC 제공

어린이 인형음악극 ‘깡깡나무’가 찾아왔어요

내달 8~9일 ACC 어린이극장

ACC 창작작 인형음악극 ‘깡깡나무’가 4월 8~9일 이틀 동안 ACC 어린이문화원 어린이극장에서 열린다.

‘깡깡나무’는 주인공 파나가 새 아파트로 이사한 날 잃어버린 인형 곰곰이를 찾기 위해 친구들과 함께 떠나는 모험 이야기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잊지 않고 지켜야 할 생명과 일상의 소중함을 우정과 모험의 여정을 통해 일깨워준다. 탄탄한 스토리를 기반으로 제작돼 어린이는 물론 가족 모두가 함께 관람하기에 좋다.

특히 기차 엔진을 닮은 커다란 무대 장치의 호기심 가득한 움직임, 인형극의 무대가 되기도 하고 벽이 되거나 스크린으로 변하는 테이블,

섬세한 움직임의 목각 인형과 음악, 영상 등 다양한 볼거리로 관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한다.

공연은 4월 8일과 9일 오전 11시와 오후 3시 총 4회 진행된다. 관람권은 1만5,000원이며, ACC 홈페이지(www.acc.go.kr)를 통해 예매할 수 있다.

김선옥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사장은 “ACC가 제작한 어린이 공연들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그 시작점에 있는 공연이 ‘깡깡나무’다”면서 “2015년 초연 이후 전국을 누비며 ACC 대표 어린이공연으로 자리잡은 ‘깡깡나무’ 공연이 지난해와 올해 초 서울 투어를 마치고 ACC 관객들을 다시 찾아온다”고 밝혔다.

/최진화 기자

광주문화재단, 예술인파견지원사업 공모

광주문화재단은 2023년 예술인파견지원사업-광주예술로 사업에 참여할 기업·기관(마을) 및 리더예술인을 공개 모집한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예술인파견지원-광주예술로(지역사업)은 예술인과 사회(기업·기관·마을)와의 협업을 기반으로 예술인에게 다양한 활동 기회를 제공해 예술인의 직업 역량 및 예술영역 확대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광주문화재단은 기업·기관(마을) 14개소와 예술인 70명(리더예술인 14명, 참여예술인 56명)을 선정, 지원할 계획이다. 최종 심의를 거쳐 선발된 기업·기관(마을)과 예술인을 매칭해 14개 팀을 구성, 6개월간 예술협업 활동을 수행한다. 리더예술인에게 월140만원, 참여예술인에게 월120만원의 활동비가 지원된다.

기업·기관(마을)의 신청자격은 광주시에 소

재한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곳으로 창의적 예술방식을 통해 이슈를 해결하거나 조직문화 개선, ESG 경영실천(환경문제, 사회공헌활동 등)을 시도해 보고자 하는 곳이면 어디든 신청 가능하다.

리더예술인은 기업·기관(마을)의 이슈를 진단하고 참여예술인과 예술협업활동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예술인이다. 신청 자격은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한 광주시 거주 예술인이며 2023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참여 제한을 통보받은 예술인과 리더예술인으로 3년이상 연속참여한 예술인은 참여가 제한한다. 참여예술인은 4월 초 공모를 통해 선발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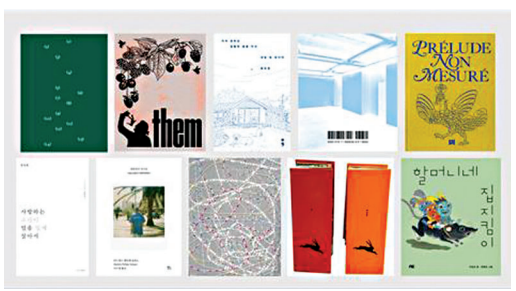
접수는 오는 30일 낮 12시까지 이메일(aribodum@naver.com)로 신청 가능하다. 접수에 필요한 신청서류 및 세부 사항은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최진화 기자

출판협회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 10종 선정

대한출판문화협회는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 10종을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 지난 21일 188종의 도서를 심사해 수상작을 선정했다. 내용과 형식의 조화, 텍스트와 이미지의 관계, 편집 구조, 표지와 내지, 종이·인쇄·제본의 완성도, 가독성 등 책을 이루는 요소들을 고려해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 “심사지표에 부합한 잘 만들어진 책뿐만 아니라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도 고유한 장점과 견실한 복디자인 역량을 충족하는 책을 중심으로 ‘아름다운 책들’을 선정했



다”고 밝혔다.

수상작들은 독일 북아트재단과 라이프치히 도서전이 공동 운영하는 국제 북디자인 공모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에 자동 출품된다.

◇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 10종

▲ 아가씨방북 ‘1-14’ ▲ 매거진 ‘them 2호’ ▲ 매거진 ‘유용한 바보들 issue 0’ ▲ 에세이 ‘각자 원하는 달콤한 꿈을 꾸고 내일 또 만나자’ ▲ 에세이 ‘뭐가 먼저냐’ ▲ 에세이 ‘살라리 오 미니모’ ▲ 그림책 ‘토끼전’ ▲ 그림책 ‘할머니네 집지킴이’ ▲ 악보집 ‘비정량 프렐류드’ 외 ▲ 시집 ‘사랑하는 소년이 얼음 밑에 살아서’

/연합뉴스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는 신뢰받는 기업



현대로오텍(주)



현대이엔티(주)

생산 및 품질인증시스템의 구축은 물론 **고품질, 고효율, 유지보수**에
편리한 제품 생산을 위해 임직원 모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연구 개발을 통해 완벽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의 가치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생산품

수배전반(고압반, 저압반, 전동기제어반, 분전반 등)

태양광EPC

태양광시공 및 분양, ESS, 전기공사, 유지보수

현대일렉트릭 특약점

비상발전기, 변압기, 모터, 차단기, 태양광PCS

변전소터키공사

154/345kV S/S 공급 시공, 시스템설계, PM

154kV 해남변전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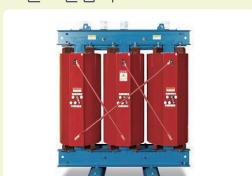
태양광발전소-PV+ESS



건물, 지붕 태양광



물드변압기



배전반



주변전실 배전반





대표이사 노정규
C.P 010-3573-1323
Homepage <http://rotech.kr>
E-mail rotech@rotech.kr

광주본사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 연신로 340 (연제동) 현대로오텍(주)
TEL : (062) 972-4491 FAX : (062) 972-8863
목포공장 : 전남 영암군 삼호읍 삼불3길 14 (난전리) 현대이엔티(주)